

연령계층별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도 비교*

The Preference of the environments of the elderly housing
by different age groups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대학원 지은영
교수 고정자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Graduate school : Eun Young Jee
Professor : Jung Ja Ko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논의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housing for the elderly preferred by different age groups.

By age groups, the result of the study may be described as follows:

1. The young people and the middle aged wanted to live in self-contained unit, but the aged tended to live in the three-generation sharing house to spend their declining years in the future.

2. In the interior housing environment, all three age groups were highly interested in the security facilities than the interior space arrangements of planning of elderly housing.

Especially, the result of demand of the interior space arrangements in the young people was higher than the old age's.

In the exterior housing environment, the garden is the most important space in establishing housing plan.

*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 늙게 되면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약화되어 어느 시기보다 편리한 주거조건과 환경이 요구된다.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는 노인에게 있어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로, 노년기의 주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핵가족 중심의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고자 부모세대와 별거하려는 자녀세대의 부양위식 변화와, 노인 자신도 자녀들과 동거하기보다는 별거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와 선호도를 수용하고 노년기의 심리적, 경제적, 건강상태 등 제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노인주거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주택과 거주지역내에서 지내게 되는 노인은 거주환경의 시설여하에 따라 그들의 생활조건이 결정된다(고성룡, 1990). 그러므로 노인주거환경을 계획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노인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야 하며, 또 노인을 위한 실내환경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사용자인 노인의 住要求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Meeks, 1980). Carp & Carp(1990)는 노인의 특이한 행태적 욕구는 일반인의 욕구 수용과는 달리 주거환경의 지원성을 높게 제공하여 주거환경을 만족시켜줌으로써 노인의 복지와 정신건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이 노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서 주거가 복지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노인들의 주거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노인주거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을 위한 주거계획에 관한 선행연구(지순 외, 1986; 신경주, 1988; 최정신, 1990; 오찬옥, 1993; 전명숙, 1994; 고경필·윤재웅, 1995)들은 대개가 중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현재의 노인층이나 청년층과의 비교연구 또한 미래 노인주거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도를 청년, 중년, 노년 각 연령단계별로 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주거가 실현될 가까운 미래에 실사용자가 될 중년층의 미래지향적인 의식과 현재 노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선호되는 차이를 알고, 그들의 자녀세대인 청년층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를 규명하여 앞으로의 노인주거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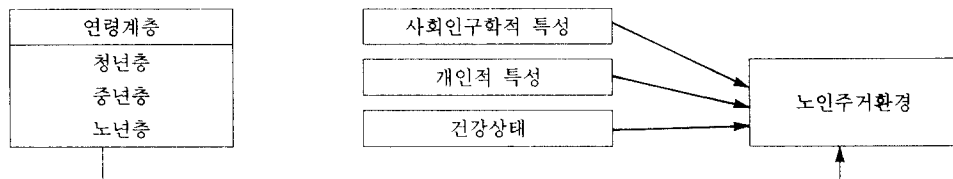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청년층의 사회인구학적, 개인적특성이 노인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중년층의 사회인구학적, 개인적특성과 건강상태가 노인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4〉 노년층의 사회인구학적, 개인적특성과 건강상태가 노인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이상의 연구문제를 모형화하면 <그림 1>과 같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주거환경

노인에게 있어서 '주거' 혹은 '주거환경'이라는 용어는 가옥(dwelling)과 대지(lots)뿐 아니라 이웃과 근린사회의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이 포함된 의미이다(Golant, 1984). 노년기에 이르면 신체에너지가 저하하여 원하는 활동을 즉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활동에 대한 욕구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러한 신체상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주거환경이 필요하게 된다. 최성재(1992)는 노인에게 편리하게 설계된 주거를 확보하여 생활할 수 있다면, 주거는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기능의 저하를 보충하고 수용해 주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차미란(1984)과 고성룡(1990)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에는 뒀 수 있으면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바닥의 요철이 없게 하고, 바닥마감재는 미끄럽지 않고, 노후의 신체적 변화에 대비한 난방장치 및 침대, 욕조, 화장실 등에 노인이 쉽게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의 체계화 등 안전시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은 과거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물건을 버리지 않는 습성이 있으므로, Lawton(1975)은 노인들에게 충분한 수납공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은옥(1987)과 최정신(1990)은 노인주택 및 노인실에는 노인전용의 충분한 수납공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을 위한 주거계획은 물리적 환경이 심신의 쇠퇴에 대처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수 있고 이와 아울러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은퇴로 인한 수입의 감소와 고독과 소외, 사기의 저하, 그리고 의존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적 역할의 상실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주택을 계획할 때,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대한 선호도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노인정이나 노인학교가

노인이 혼자 이용할 수 있는 거리와 교통편에 위치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에 대해 荒木兵一郎(1987)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웃 및 친구들과의 접촉이 용이하고, 시설면에서 안전하며 간호와 보호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노동, 여가, 일을 통한 자기표현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노인시설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이효재·박민자·지순, 1987; 건설부·주택공사, 1987; 정은옥, 1987; 신경주, 1987, 1989; 신경주·최정신, 1989)에 의하면, 3대동거주택의 생활환경을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보거나 주변환경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밝히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주변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주택내부환경, 인적환경, 사회환경, 노인환경, 문화환경, 주변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의 경우, 주택내·외부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적환경, 사회환경, 주택내·외부환경의 순으로 낮아졌다.

이상에서와 같이, 노인의 복지를 위해 요구되는 주거환경은 주택단위뿐 아니라 노인복지 서비스시설까지 포함하는 환경체제로서의 개념인 것이다.

2. 관련변수의 고찰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성별

최정신(1990)과 전명숙 외(1992)의 연구결과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주택내부환경에 대한 선호도와 교통 및 주변환경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정원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다. 내부환경 중 내부공간구성에 대한 선호도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고경필·윤재웅, 1995).

(2) 교육정도

고졸 집단보다는 대졸이상의 집단이 노후에 자녀 및 친척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전명숙(1994)의 연구결과와 저학력일수록 자녀와 가까이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신경주(1988)의 연구결과는 상

반된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박태환(1990)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동거비용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노인들끼리의 생활을 선호하며, 자녀나 친지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내부공간 구성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전명숙, 1994).

(3) 소득

Chatfield(1977)는 소득을 노인의 주거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권영규(1982)는 노인주거문제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으로 노인 스스로가 주거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면이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외부환경중 교통 및 주변환경에 대한 선호도는 소득이 적은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전명숙, 1994). 이는 교통수단의 이용 종류와 정도가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의 이용종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4) 종교

전명숙(1994)의 연구결과,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교통 및 주변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종교활동에 적극적인 경우는 교육 및 종교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인적 특성

(1) 결혼상태

Thompson, L.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로 인한 경제적 박탈과 주거를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고 하였다. 이는 특히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 주거형태

전명숙(1994)의 연구결과,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사는 거주자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내부공간구성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파트 거주자의 선호도가 가장 컸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들은 주변생활환경이나 유지관리 등의 실생활 측면에서의 편리함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건강상태

Streib과 Beck(1980)는 건강이 노인의 住生活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으며,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은 자신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주거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오찬옥(1993)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가 건강한 경우에는 노인세대만이 사는 것을 선호하는 비율이 86%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혼자 살게 되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등 열등한 상황으로 갈수록 이 비율은 줄어들어 6%에 불과했다.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 딸아들과 가까이 거주하면서 의존하려는 성향을 보였으며, 건강할 때는 오락집회시설, 문화프로그램 및 정보제공서비스,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간호·간병서비스를 많이 선호하였고,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는 의료서비스, 간호·간병서비스, 가사보조서비스, 식사제공서비스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청년층(20~30대), 중년층(40~50대), 노년층(60대 이상)의 남자 238명과 여자 378명으로 총 6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용, 중년층 및 노년층용의 2가지 유형으로 작성하였다. 청년층용 설문지에는 현재의 건강상태가 미래의 노인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건강상태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가.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 그리고 건강상태 등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학력, 소득, 직업, 종교 등으로 구성하였고, 개인적 특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16)

연령		청년층 (n=264)		중년층 (n=190)		노년층 (n=162)	
		f	%	f	%	f	%
성별	남	103	39.0	83	43.7	52	32.1
	여	161	61.0	107	56.3	110	67.9
교육정도	국졸이하	1	.4	8	4.2	70	43.2
	중,고졸	55	20.8	97	51.1	70	43.2
	대재, 대졸	208	78.8	85	44.7	22	13.6
소득	100만원이하	47	17.8	13	6.8	56	34.6
	101-200만원	123	46.6	81	42.6	61	37.7
	201만원이상	94	35.6	96	50.5	45	27.8
직업	전문직,관리직	62	23.5	42	22.1	12	7.4
	사무직	56	21.2	40	21.1	5	3.1
	판매,서비스직	41	15.5	29	15.3	20	12.3
	생산직	4	1.5	1	.5	8	4.9
	가정주부	29	11.0	73	38.4	67	41.4
	기타(무직,학생)	72	27.3	5	2.6	50	30.9
종교	있다	124	47.0	127	66.8	126	77.8
	없다	140	53.0	63	33.2	36	22.2
결혼상태	미혼	168	63.6	6	3.2	2	1.2
	기혼	96	36.4	173	91.1	94	58.0
	이혼,사별,별거	—	—	11	5.7	66	40.8
가족형태	핵가족	226	85.6	146	76.8	102	63.0
	대가족	38	14.4	44	23.2	60	37.0
주거형태	단독주택	134	50.8	86	45.3	94	58.0
	아파트	87	33.0	85	44.7	50	30.9
	연립,다세대주택	43	16.3	19	10.0	18	11.1
주거상태	자기집	188	71.2	168	88.4	137	84.6
	전세,월세	76	28.8	22	11.6	25	15.4
주거규모	20평이하	48	18.2	22	11.6	32	19.8
	21-40평	157	59.5	121	63.7	87	53.7
	41평이상	59	22.3	47	24.7	43	26.5
건강상태	병이 있다			15	7.9	28	17.3
	보통이다			87	45.8	79	48.8
	건강하다			88	46.3	55	34.0

성은 결혼상태, 가족형태, 주거형태와 주거상태, 주거규모 등으로 구성하였다.

나. 노인주거환경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도 척도는 전명숙(1994)

과 오찬옥(1993)의 연구를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하부 영역은 〈표 2〉와 같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2〉 노후의 주거환경

내부환경	안전시설	문턱의 필요성 여부 비상시 긴급연락시설의 필요성 바닥재료의 미끄럼 방지, 욕실내의 손잡이
	내부공간구성	충분한 수납공간의 필요성 불박이장, 욕조의 필요성
외부환경	자녀·친척 거주근접성	형제나 친척과의 근접성 요구 친구 및 자녀와의 근접성 요구
	노인단지구성	노인세대와 젊은세대가 같은 단지구성 요구
	정원시설	산책로·공원·정원의 필요성 요구
	서비스시설	가사보조서비스 의료서비스 간호·간병서비스 상담서비스
	교통 및 주변환경	병원, 운동시설, 교통시설, 교양오락시설, 종교기관과의 근접성 요구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에 대한 신뢰도검증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76과 .79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예비조사는 1995년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50명의 청년, 중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의미 파악이 어렵다거나 각 영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뒤, 본조사는 199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청년층 300부, 중년·노년층 각각 250부씩, 총 800부를 배포하여 650부(81%)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부실기재한 34부를 제외하고, 청년 264부, 중년 190부, 노년 162부, 총 616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연령계층별 차이를 알기 위하여는 일원

변량분석과 반복 t검증, 그리고 MANOVA를 이용하였으며, 추후검증으로서는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연령계층별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특성과 건강상태에 따른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고자 피어슨의 적률상관관계를 검토한 후,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하였고, 각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연령계층별 노인주거환경 선호도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선호도의 연령계층별 차이는 〈표 3〉과 같다.

연령계층별 노인주거의 내부환경 선호도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내부공간구성 선호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내부공간구성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test를 실시한 결과, 청년층이 노년

〈표 3〉 연령계층별 노인주거환경 선호도

		청년층 (n=264)		중년층 (n=190)		노년층 (n=162)		전체 (N=616)		F	Scheffe- test
		M	SD	M	SD	M	SD	M	SD		
내부 환경	안전시설	4.08	.66	4.04	.67	3.97	.75	4.04	.69	1.20	3 2 1
	내부공간구성	3.92	.64	3.86	.76	3.71	.72	3.85	.70	4.71**	3
	t	3.86***		3.30**		4.47***		6.70***			2 1*
외부 환경	자녀, 친척거주 근접성	3.61	.74	3.57	.76	3.91	.77	3.67	.77	11.29***	2 1 3
	노인단지구성	2.82	.68	2.94	.73	2.94	.71	2.89	.71	2.29	2
	정원시설	4.05	.64	4.07	.68	3.98	.69	4.04	.67	.87	3* *
	서비스시설	3.87	.71	3.82	.70	3.83	.79	3.85	.73	.30	
	교통및주변환경	4.01	.59	3.92	.60	3.95	.59	3.97	.59	1.10	
	F	250.96***		129.30***		95.37***		461.11***			

* P < 0.5 ** P < .01 *** P < .001

1=청년, 2=중년, 3=노년

층보다 내부공간구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충분한 수납공간과 욕조, 불박이장을 필요로 하고 있어 미래 노인주거계획을 할 때, 이러한 청년층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주거 외부환경 선호도에 대한 연령계층별 차이를 보면, 자녀·친척거주 근접성에 대한 선호도만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노인단지구성, 정원시설, 서비스시설, 교통 및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연령 계층별로 선호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Scheffe-test 결과, 중년층과 노년층,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각각 차이를 보여, 자녀·친척 거주 근접성에 대한 선호도는 노년층이 가장 높았으며 중년층, 청년층 순으로 낮아졌다. 이는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 및 친척과 가까이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보여준 것으로, 권영규(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세대일수록 자신의 노후를 자녀와의 거주거리나 동거 문제보다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시설에 대해 관심이 더 높았다.

모든 연령계층에서 정원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전명숙(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

으로 주거공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정원시설에 대한 고려가 적극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모든 연령계층에서 노인단지구성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Vardy(1984)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단지보다는 주변에 젊은층과 함께 사는 노인들이 생활에 대한 흥미, 사기, 의욕이 높다고 하였으며, 박태환의 연구(1990)에서도 노인만의 생활공간보다는 자녀 및 젊은 세대가 같은 단지내에 거주하는 것을 더 우선하고 있어 젊은 세대와 공유하는 주거형태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청년층의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특성이 노인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노인주거환경에 관련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그리고,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의 상관관계 계수가 0.4미만으로 나타났다. 회귀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2에 근접해 잔차간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환경중 안전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성별($\beta=.21$), 주거상태($\beta=-.16$)의 순으로 나타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보다는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시설 전체에 미리 보행에 지장을 주는 문턱을 제거하거나 모든 통로에는 표면의 마감재료를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선택하거나, 모든 계단과 비탈진 곳에는 손잡이설비, 위험이 내포된 지역에는 조명장치, 욕실과 침실의 경보장치, 열손실 방지와 작동의 용이성을 고려한 창문,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출입문 등의 특수 디자인을 고려함에 있어 여성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자신의 집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러한 기능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내부공간구성에는 성별($P<.05$)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beta=.16$ 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내부공간구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 노인주거의 내부공간구성 계획시 여성의 의견을 신중히 수렴해야 함을 시사한다.

외부환경중 서비스시설에는 성별($P<.05$)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의 크기는 $\beta=.13$ 이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 서비스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다. 즉 가사보조서비스, 의료서비스, 간호간병서비스, 그리고 상담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이 더 높다는 것은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비율이 높아 그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려된다. 또 노후를 자녀와 함께 보내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청년층에서 노후에 필요한 도움들을 이러한 서비스시설을 통해서 받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주거계획에

〈표 4〉 청년층의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특성이 노인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내부환경				외부환경									
	안전시설		내부공간 구성		자녀, 친척 거주단점성		노인단지 구성		정원시설		서비스 시설		교통 및 주변환경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	.26	.20*	.21	.16*	.10	.08	.01	.01	.14	.10	.19	.13*	.23	.19**
교육	.03	.02	-.08	-.05	-.13	-.08	.06	.04	.01	.00	.06	.03	-.08	-.06
소득	.02	.04	.04	.05	.05	.06	-.02	-.01	.02	.02	.07	.07	.08	.09
종교	-.05	.04	.01	.01	-.09	-.07	-.13	-.10	-.05	-.04	-.16	-.11	-.21	-.18**
결혼상태	.18	.13	.17	.13	-.07	-.06	-.02	-.01	-.08	-.06	-.10	-.07	-.07	-.06
가족형태	.02	.01	.04	.02	.03	.02	.11	.06	.07	.04	.19	.09	-.07	-.04
주거형태	.05	.03	.10	.07	.11	.08	.08	.06	-.06	-.04	.06	.04	.02	.02
	.06	.04	.09	.05	.03	.02	.01	.00	-.05	-.03	-.13	-.07	.01	.01
주거상태	-.24	.16*	-.13	-.09	-.02	-.02	.05	.03	-.05	-.03	-.12	-.08	-.09	-.07
주거규모	-.03	.06	-.05	-.09	-.00	-.01	-.04	-.08	-.06	-.11	-.04	-.07	-.05	-.10
회귀상수	4.00		4.03		4.28		2.59		4.21		3.71		4.23	
F값	2.31*		1.95*		.86		.46		.68		2.16*		3.06**	
R ²	.10		.07		.05		.08		.08		.10		.12	
D계수	2.01		1.94		1.88		1.89		2.10		2.03		2.02	

* $P<.05$ ** $P<.01$ *** $P<.001$

D: Durbin-watson

성별(남=0, 여자=1) 종교유무(있다=0, 없다=1) 결혼상태(미혼=0, 기혼=1)

가족형태(핵가족=0, 확대가족=1) 주거형태(단독=0, APT=1, 연립·다세대=2)

주거상태(자기집=0, 전세·월세=1)는 가변수 처리하였다.

교육, 소득, 주거규모와 건강상태는 점수화 하였다.

〈표 5〉 중년층의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특성, 건강상태가 노인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내부환경				외부환경									
	안전시설		내부공간 구성		자녀,친척 거주근접성		노인단지 구성		정원시설		서비스 시설		교통 및 주변환경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	.23	.17*	.30	.20*	.16	.12	.28	.19*	-.03	-.02	.36	.26*	.20	.17*
교육	.16	.13*	.34	.26**	.08	.06	.15	.18	-.01	-.01	.10	.12	.01	.02
소득	-.30	-.27**	-.21	-.17	-.032	-.02	-.15	-.12	-.03	-.05	-.21	-.20*	-.12	-.26**
종교	-.08	-.06	-.11	-.07	-.24	-.17*	-.13	-.08	.12	.08	.05	.04	-.25	-.20**
결혼상태	-.13	-.09	-.04	-.02	.14	.06	.19	.07	-.06	-.03	-.03	.01	-.01	-.00
가족형태	.15	.09	.07	.04	-.04	-.03	.09	.05	-.01	-.00	.01	.01	.06	.04
주거형태	.20	.16*	.30	.20**	.17	.13	.05	.03	-.12	-.09	.13	.10	.12	.10
주거상태	-.12	-.06	-.11	-.05	-.157	-.07	-.06	-.02	-.36	-.16*	-.02	-.01	-.12	-.06
주거규모	-.02	-.01	-.11	-.05	-.02	-.01	-.19	.08	.20	.09	.14	.07	.13	.07
건강상태	.04	.06	-.02	-.03	-.02	-.03	.04	.06	.02	.03	-.9.08	-.00	.05	.09
건강상태	.02	.02	.00	.00	.03	.03	.02	.02	.22	.20**	-.01	-.01	-.07	-.07
회귀상수	4.20		3.43		3.34		2.20		3.76		1.53		4.19	
F값	2.06**		2.52*		1.39		1.21		1.37		1.86*		2.86***	
R ²	.13		.14		.10		.08		.08		.11		.18	
D계수	1.98		2.08		2.20		2.03		2.21		2.07		2.14	

있어 제서비스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통 및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성별($\beta=.19$)과 종교유무($\beta=-.18$)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경우에서, 병원, 운동시설, 교양 오락시설, 교통시설, 종교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어하였다. 또 현재 종교활동이 적극적인 집단이 노후의 교육 및 종교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전명숙(199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 노인주거환경에 영향력을 미치는 회귀식의 설명력이 교통 및 주변환경, 서비스시설, 그리고 안전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하부영역에서 10%미만으로 나타나 또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3. 중년층의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특성과 건강상태가 노인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중년층의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특성과 건강상태가 노인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5〉와 같다.

내부환경중 안전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소득($\beta=-.27$), 교육($\beta=.13$), 성별($\beta=.17$), 주거형태($\beta=.16$)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안전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여성이 안전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년층에 있어서도 여성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나, 남성보다 안전에 대한 인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단독주택보다안전문제나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 양호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집단이 안전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재의 안전시설에 덧붙여 노후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안전시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내부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교육($\beta=.26$), 성별($\beta=.20$), 주거형태($\beta=.20$)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인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내부공간구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전명숙(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남성보

다 주거내 활동이 많은 여성이, 또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충분한 수납공간과 붙박이장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주거의 외부환경중, 자녀·친척거주 근접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종교유무($\beta = -.17$)로 나타나 종교를 가진 경우 자녀·친척들과 가까이에서 거주하고 싶어하였다. 이는 종교를 가지고 절대자라는 대상에 믿음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노후에 자녀·친척이라는 대상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단지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성별($\beta = .19$)로, 여성이 남성보다 노인단지구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동년배 노인들과 이웃하여 함께 벗하고, 의지하며 살기를 더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원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건강상태($\beta = .20$)와 주거형태($\beta = -.16$)로 나타나, 건강할수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정원시설 선호도가 높았다. 건강이 좋을수록 활동성도 높아 공원과 산책로를 이용한다든지 정원을 가꾸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박태환(1986)의 연구결과에서도, 40, 50대의 취미활동으로 화초가꾸기가 전체의 54%, 채소가꾸기가 19.6%로 나타나 화초나 채소를 가꿀 수 있는 최소한의 지상공간 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서비스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성별($\beta = .26$)과 소득($\beta = -.20$)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교통 및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소득($\beta = -.26$), 종교유무($\beta = -.20$), 성별($\beta = .17$) 순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을수록, 종교를 가진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그 선호도가 높았다. 소득이 낮은 경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통수단 근접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진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종교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거 가까이에 있기를 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년층의 경우, 노인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식의 설명력이 노인단지구성과 정원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하부영역에서 10%이상으로 나타났다.

4. 노년층의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특성과 건강상태가 노인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노년층의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특성과 건강상태가 노인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내부환경중 안전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주거규모($\beta = .23$)와 가족형태($\beta = -.20$)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규모가 클수록,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이 안전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큼을 의미한다.

내부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성별($\beta = .25$)로 나타나, 청년층과 중년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내부공간구성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일 지하였다.

외부환경중 자녀·친척거주 근접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성별($\beta = .21$)과 주거규모($\beta = .20$)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규모가 클수록 자녀·친척거주 근접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자녀나 친척과의 거주 근접성을 더 선호한다는 신경주(1988), 전명숙(1994)의 중년층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처럼 현재의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더 자녀나 친척과 가까이 거주하고 싶어하여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서비스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건강상태($\beta = -.09$)로 건강이 나쁠수록 서비스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할수록 가사보조서비스, 의료서비스와 간호·간병서비스, 그리고 상담서비스를 노후에 원하게 되어 노인주거를 계획할 때 주변의 서비스체제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통 및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역시 건강상태($\beta = -.11$)로 나타났는데,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노년층의 경우, 노인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식의 설명력이 노인단지구성과 정원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하부영역에서 1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6〉 노년층의 사회인구학적, 개인적 특성, 건강상태가 노인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내부환경				외부환경									
	안전시설		내부공간 구성		자녀, 친척 거주근접성		노인단지 구성		정원시설		서비스 시설		교통 및 주변환경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	.18	.12	.37	.25*	.31	.21*	.17	.11	.05	.03	.14	.09	.17	.14
교육	-.02	-.02	.1018	.18	-.08	-.08	.07	.07	-.06	-.06	-.09	-.15	-.11	-.13
소득	-.14	-.15	-.09	-.0707	-.13	-.14	-.03	-.04	.09	.10	.09	.18	.07	.08
종교	.19	.11	.25	.15 .15	.00	.00	-.08	-.05	.21	.13	.14	.08	-.04	-.03
결혼상태	.09	.06	-.10	-.0707	.02	.02	-.09	-.06	.19	.14	.03	.02	.02	.02
가족형태	-.30	-.20*	.08	.05 .05	.08	.06	.06	.04	-.02	-.01	-.17	-.11	-.00	-.00
주거형태	-.00	-.00	.22	.15 .15	.12	.08	.21	.14	.06	.04	.12	.08	.20	.16
주거상태	.04	.02	-.14	-.0606	-.00	-.00	-.02	-.01	-.30	-.14	-.13	-.05	-.24	-.13
주거규모	.04	.02	.14	.07 .07	-.05	-.03	-.14	-.07	.05	.03	-.01	-.01	.06	.03
건강상태	.13	.23*	.08	.14 .14	.10	.20*	.04	.08	.03	.07	-.01	-.01	-.02	-.04
건강상태	-.12	-.11	.12	.11 .11	-.01	-.01	.15	.14	.00	.00	-.10	-.09*	-.09	-.11*
회귀상수	3.48		2.81		4.02		3.16		3.85		4.12		4.16	
F값	.99		.69		1.36		1.05		.99		.73		1.39	
R ²	.12		.09		.15		.12		.09		.10		.10	
D계수	1.80		2.01		1.82		1.82		1.93		1.84		1.96	

V. 결론 및 제언

본 에서는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청년·중년·노년 각 연령단계별로 노인주거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파악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노인주거 계획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노년층은 노후를 그들의 자녀에게 의지하며 살고 싶어하나, 청년층과 중년층은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의 노인주거계획에 있어서 노후의 독립적인 생활유지를 가능케 하는 유형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주거계획은 획일적인 유형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노인의 제특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간호·간병체계 구축 등의 문제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노인주거환경중, 내부환경에서는 안전시설의 설치치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외부환경에서는 정원시설

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반면 노인단지구성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노인주거환경 조성시 화초나 채소를 가꿀 수 있는 공간확보가 필요하며, 노인들로만 구성하기보다는 젊은층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3. 노인주거에 대한 선호도는 각 연령층의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주거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남성보다 많아 주거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관심 또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주거 계획시 여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도시근교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선호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사지역을 확대시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에서 이용된 노인주거환경에 대한 질문지는 미래 노인주거를 나타내는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질문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고경필·윤재웅(1995). 중년층의 노년기 주거환경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6(1).
- 2) 고성룡(1990).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계획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권영규(1982). 한국노인의 주거계획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박태환, 한국노년층을 위한 계획주거와 주거단지의 모형개발, (1991).
- 5) _____, 노년건축학, 보성각, (1995).
- 6) 신경주(1987). 청년의 住要求 측면에서 본 3대 동거주택의 조건(II), 한양대 환경과학 논총 제1집.
- 7) _____ (1989). 중년의 住要求 측면에서 본 3대 동거주택의 조건,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5(5).
- 8) 오찬옥(1993). 중년층의 선호성향을 통해 본 노인 주거모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9) 윤성혜(1990). 청년·중년·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0) 이연숙(1978).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_____, 노인보호주택, 경춘사, (1993).
- 12) _____, 한국형 노인주택 연구, 경춘사, (1993).
- 13) 이연숙·오찬옥(1993). 중년층의 배경변인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한국주거학회지 4(1).
- 14) 전명숙(1994).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 노인주거 환경,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15) 전명숙·강순주·조현경(1992). 노인주거에 관한 중년층의 住要求, 대한가정학 회지, 30(4).
- 16) 정은옥(1984). 축소기가족을 위한 주거건축의 성능 요구 조건 설정,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지순·윤복자(1986). 노후생활 주택단지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4(1).
- 18) 차미란(1984). 노인층의 계획과 설계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최성재(1993). 노인주택개발과 노인주택정책,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 20) 최정신(1992). 대도시 중년층의 3대동거주택의 住要求(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8(6).
- 21) 최정신(1990). 3대동거가족의 住要求,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22) 최정신·신경주(1990). 노인의 자립성 측면에서 본 노인주택의 분류,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1.
- 23) 林玉子(1986). 高齢者社會で老人の住居環境の展望, 東京都老人総合研究室.
- 24) 小川猛, 高貞子 譯(1995). 老人 心理學의 實際, 동아대학교출판부.
- 25) Carp, F. M., & Carp, A.(1984). A Complementary/Congruence Model of Well-Being or Mental Health for the Community Elderly, In Altman, I. et al.
- 26) Chatfield, W.,(197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32.
- 27) Golant, S. M.(1986). Subjective Housing Assessment by the Elderly: A Critical Information Source for Planning and Program Evaluation. *The Gerontologist*, 26(2).
- 28) Lawton, M. P., & J. Cohen(1974). The Generality of Housing Impact on the Well-Being of Older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29.
- 29) Meeks(1980). Housing,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 J.
- 30) Vardy, D. P.(1984). Determinants of Interest in Senior Citizen Housing among the Community Resident Elderly, *The Gerontologist*, 24(4).